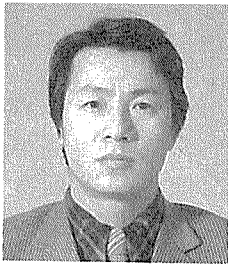


## DB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이 철 수  
한국데이터통신(주) 상무

### 1.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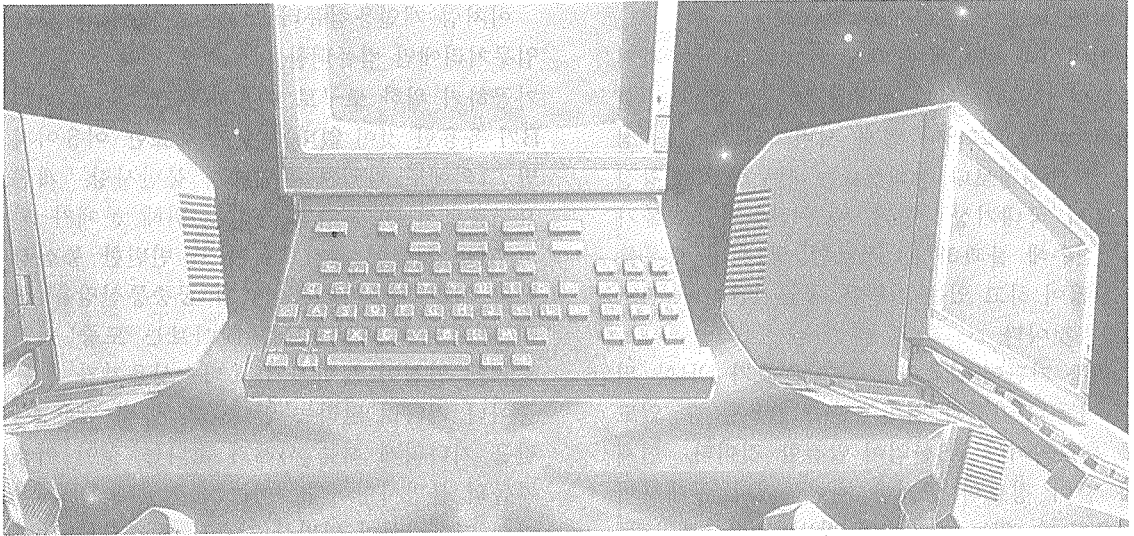
국내통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면 개방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의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부가통신산업에 있어서 통신매체나 설비가 도구라 한다면 DB, 전자사서함, 정보처리, 정보가공 등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부가통신산업의 육성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보기기산업의 육성 및 보급확대, 디지털통신망의 확장과 더불어 DB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인 것이다. 정보기기산업이나 통신망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직·간접 정부투자와 기업의 육성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DB산업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 아직도 그 구체성이 미흡한 것이 국내의 정보산업 현황이라 하겠다.

하나의 DB를 일반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를 제작하는 DB제작자 이외 유통판매를 주도하는 DB판매업자 등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DB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정보검색역무업체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80여개의 업체가 승인을 득하고 있어 숫적으로는 적지않은 업체가 DB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정보를 자체 생산하거나 보유하여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여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표1 참조>

정보의 유효성은 적시성과 정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전문성이 정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의 내용이 대부



DB산업은 구체적인 육성발전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일반적인 사실이나 항목의 열거에 그치는 것이 많고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분석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적다.

또한 일반사항의 경우에도 그 양이 방대하여 양적인 풍요를 제공하거나 세부정보에 대한 소개와 획득 방법을 제고해 준다면 그 유효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나마 충실하게 되어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일반인의 경우 유료로 이들 정보를 획득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유료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회피하고 무료화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책임있는 정보의 유통체계의

<표-1> 경영과 컴퓨터

기관명	DB 또는 DB 서비스명	내용	기관명	DB 또는 DB 서비스명	내용
KIET 경제기획원	경제통계	국내산업, 국민사정, 물가	정부정보산업	건설, 부동산	
DACOM	천리안Ⅱ	일반생활정보 등	중앙기상대	국내기상	
한국경제신문	NETEC	"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번호, 기타	
증권전산	증권정보	천리안Ⅱ	한국표준연구소	해외공업규격	천리안Ⅱ
한국신용평가	KIS-LINE	기업정보	가락동도매시장	농수산물시황·가격	천리안Ⅱ
한국기업평가	KMCC·FINDS	기업정보, 천리안Ⅱ	관리공사		
한국종합신문	NICE·TIDS	기업정보, 신용정보	농수산물유통공사	도소매가격	천리안Ⅱ
무역진흥공사	해외무역정보 (KBDS)	수입상리스트, 일반거래	연세대보건대학원	보건의료	천리안Ⅱ
KIET	국내기업체정보 (TCR)	상공회의소	병무청	병무민원	천리안Ⅱ
	국내도입기술정보 (DMD)	재무부, 상공부	연세대공대	생물과학	천리안Ⅱ
	국내석박사학위논문정보	국회도서관	서울시청	서울시민원	
	국내정기간행물기사색인 (DIGS)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	외국학술잡지목록, 교수인명록	천리안Ⅱ
	국내·제일한국인과학자인명정보	특허청	교보문고	도서출판사, 신간도서	
	국내특허기술정보 (KPTN)		출판문화협회	국내출판물총목록	
	국제연구기관, 개발기술정보		대신증권	증권정보	
	국내학술문헌정보		동서증권	"	
	산업연구원전문도서장자목록		동양증권	"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쌍용투자증권	"	
	재구한국인과학자인명정보		한신증권	"	
	재미한국인과학자인명정보		현대증권	"	
	해외연수습득기술정보		고려증권	"	
기산시스템	증권투자정보		동남증권	"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	천리안Ⅱ	동방증권	"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별농수산물정보	천리안Ⅱ	동서증권	"	
법아정보시스템	신하증권		럭키증권	"	
서울컴퓨터자재	특허, 실용, 신안등		금성반도체	입찰정보 (GINS)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연구인명록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KOTIS)	

결여에서 오는 현상이라 하겠다.

기업이나 일반에게 가장 유효한 DB는 과거 정보의 대량축적보다 계획정보의 정책정보, 실행정보이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정보 중 계획정보나 정책정보는 전무하고 실행정보로서 국내기상, 증권, 농수산물가격, 물가 등 소수에 불과하다. 정보의 생산 및 보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일 것이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DB화 되고 이들을 기업과 일반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DB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DB산업의 발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DB제작업체의 경우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하여도 정보가 없을 경우 이는 불가능하다. 또 일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하였다 해도 그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갱신되어 최신 정보로서의 질적인 가치를 높이지 아니하는 경우 그 DB는 죽은 DB에 불과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실망을 줄 뿐이다.

이는 국외 DB의 경우 시간당 10원이상의 정보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사용자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 DB사용을 무료화하는 것을 제시하는 현상을 유추하더라도 그 유효성의 결과를 느낄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연구소 등은 보안이나 공안, 기업의 Know-How 개인의 신분 등에 관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자체기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DB제작기관을 통하여 공개하고 그 사용료를 수입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제시하는 DB산업육성 방안이 아쉬운 현실이라 하겠다.

현재 DACOM, KETEL, KOTIS, 증권회사 등 대형 DB판매업체에 가입된 가입자의 수는 2만여 가입자에 달한다. 이는 국내 개인용컴퓨터의 보급 대수에 비해 1%에도 못미치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처럼 개인용컴퓨터 보유자가 단순히 개인 업무처리에만 컴퓨터를 이용하고 정보를 획득, 가공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는 데는 DB가 유용한 것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그외에도 가입자 측면에서 불만사항, 개선 요구들로서 DB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첫째는, 빈번한 통신장애와 처리 지연이다. 어렵게 공중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해당정보를 찾아보는 도중 원인 모르게 연결이 끊어지거나 다수사용자가 사용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안내문과 함께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이다. 이는 통신망과 DB제작사의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정보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의 Infrastructure의 안정화 및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DB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못하여 메뉴방식, 색인방식, 키워드방식 등이 존재되어 있고 각각의 방법에서도 표준적인 방식이 없어 한 사용자가 여러 DB제작업체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표준검색방식, 한글 키워드표준 등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셋째는, 가입자의 부담이 DB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느끼는 것이다. 가입자는 가입비, 통신사용료, DB사용료와 함께 필요한 통신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이들 비용이 기본도구인 개인용컴퓨터의 가격에 비해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한다. 개인용컴퓨터 1000만대 보급계획을 정부가 실천하고자 한다. 단순히 개인용컴퓨터의 보급으로 정보산업이 육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능하다면 개인이 설치해야 하는 통신장비 등의 기능향상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체제도 현실적에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DB의 소재에 대한 정보나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 실상 어떤 내용의 정보가 DB화 되어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입자도 많다. 따라서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 협회 등의 최소한 국내 DB의 현황과 소재에

대한 안내를 공동으로 하는 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DB제작업체, 판매업체 각종 도서관, 정보통신 관련학회, 그외 유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국내 DB의 현황을 상시 소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아직 국내 DB산업은 산업으로서의 한분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단지 신중산업분야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단계이며 정보의 상품화를 위한 보다 고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 2. 정부기관의 육성정책

근년에 들어 정보통신 유관부처인 체신부, 상공부, 과기처 등은 DB산업의 육성은 물론 정보산업 전반에 걸친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그 의지를 표명 추진하고 있다. 그중 DB산업에 관련된 주요 정책들은 고무적이다.

부처에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및 활용추진에 대한 방안으로 '데이터 베이스와의 협력증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지업, 컴퓨터 리스자금지원 등 정보업체의 설립을 직접지원하고 DB구축을 위한 설비투자의 세제지원, 구축된 DB의 자본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통한 자금의 조달 원활화를 위한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정보제공이나 세제지원만으로는 산업자체의 특성상 그 창업이나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DB구축지원을 위한 별도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체신부의 경우 '96년까지 650여개의 DB구축을 목표로 200억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상공부는 DB진흥기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지방정보센터 확장 등 DB사업을 위해 6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DB구축, 운영, 이용기술분야에 걸친 표준화와 업체표준, 국가표준 등 개인형시스템에 근거한 표준을 제공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기술, 자연언어처리기술

등 DB운용기술의 개발에 적극 지원하며 비디오텍스트, 오디오텍스트 등 뉴미디어 분야로 DB산업의 환경을 확대시키는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나아가서 DB산업발전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해 DB분야별 전문기관의 육성, DB전담기관의 역할 정립 및 분담을 통한 DB제작전문업, 유통전문업 등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공부의 경우 보다 실질적인 DB산업의 선도를 위해 산업기술 정보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산업정보기술의 수집, DB화하고 산업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지방정보센터를 통해 전국 기업, 공단, 학교,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체신부는 전국 우체국망을 구축하여 3,500여개의 우체국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서비스하며 이를 통해 특산물의 판매, 각종 편의시설의 예약 등을 겸하므로써 DB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과학기술정보가 향후 국내 산업발전의 기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해외 핵심 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DB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

특히 핵심과학기술 정보의 획득은 각국이 자국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만큼 그 수집이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서 획득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우선 국내 학교, 연구소, 산업체 등의 기술정보만이라도 수집 공동활용하는 체제를 갖추는 단계별 계획추진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과기처가 독자적으로 과학기술 중추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부처별로 DB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간전산망을 통하여 축적된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부처별 독자적인 전산망을 구축할 경우 이의 상호접속 등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려니와 사용자의 번거로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이의 범부처적 해결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정보란 목적별, 계층별 그 수요가 다를 수 있다. 쉽게 구분하여 과학, 기술, 학술정보, 경영 산업기술정보, 교육정보, 진료의료정보, 신용정보, 생활정보, 행정민원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각각에 대해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 정보에 따라서 수집체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DB를 제작한다면 정보를 수집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보는 업무처리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것이고 이 생성된 정보의 축적관리의 제고화를 이루는 것이 DB를 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정보는 자료생산처에서 생산되어 수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DB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야별 원천자료 생산지별 DB제작 그룹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IP (Information Provider)의 육성은 자료수집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원천자료생산 부서의 전산화를 지원하고 수집된 자료의 DB화와 공개를 유도하는 정책이 DB산업의 육성에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효한 정보의 생산부서를 선별하고 전산화를 지원하는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의 상호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제도적 보완과 정보의 유료화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3. 일반 이용자의 경향

DB산업이 산업으로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용자 대상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DB분야별로 계층화 되어 이용자 자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나 연구소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DB는 그 내용이 제한될 것이고 정보화 사회가 되었을 경우 전체 국민이 그 이용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안목으로 D

B를 제작하여야만 산업으로서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7년 말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전국 18세 이상 1,600명에게 국민생활정보망을 구성하기 위하여 원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가를 듣는 여론조사를 한적이 있다. 시기적으로 컴퓨터 마인드가 현재와 같이 확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개인용컴퓨터 보급대수가 늘었고 컴퓨터 마인드가 확산되었기에 오히려 정보에 대한 욕구가 더욱 다양화되고 커졌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일반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정부의 DB산업정책 입안자나 DB제작업자 등의 DB제작 사업화에 반영이 되어야 DB산업이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존 매체인 TV/라디오, 잡지, 책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는 매체의 특성별로 잘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단지 책(단행본)의 경우 그 내용 자체가 전문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선택의 범위가 넓고 고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책이나 잡지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61.7(56.8)%에 달한다는 것은 책과 잡지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표2 참조>

물론 설문조사서가 제한된 항목을 열거하고

<표-2>

항 목	매 체			추가 요구정보		
	TV/라디오	잡 지	책	TV/라디오	잡지	책
1. 보건·의료정보	21.4	8.3	8.0	24.7	20.0	18.5
2. 공공정보	9.9	3.1	4.0	11.5	11.2	16.1
3. 생활경제정보	14.1	6.5	5.0	19.0	15.3	15.1
4. 교육정보	12.0	3.6	6.5	14.3	11.2	14.1
5. 농수산정보	15.2	3.6	3.8	15.0	10.2	12.0
6. 생활과학정보	4.9	3.3	3.3	8.0	13.1	10.7
7. 문화생활정보	11.1	7.8	6.5	12.9	11.3	10.6
8. 취미, 오락	15.7	11.8	8.2	13.1	14.2	9.6
9. 레저스포츠행사						
10. 뉴스	64.8	7.7	5.4	32.2	9.2	8.2
11. 소망정보	22.7	8.9	4.0	13.5	10.0	6.6
11. 여행관광정보	6.7	6.3	4.1	3.1	6.8	4.9
12. 기 타	0.2	0.5	0.9	2.1	1.1	0.7
없 다	15.5	56.8	61.7	9.5	27.3	29.9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더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요구에서 나타난 것 중 두드러지는 것은 보건 의료정보의 필요에 대해 각 매체가 다 공동으로 강한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TV/라디오, 잡지와는 달리 책의 경우 공공정보, 생활경제정보, 교육정보 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이는 TV/라디오와 잡지가 그 부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3〉

순위	부분별 정보	정보 내용	
1	보건·의료정보	가정에서 응급처치 방법	26.4
2	보건·의료정보	병원, 의료기관안내	19.3
3	보건·의료정보	개인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요령	17.1
4	농수산정보	농/축/수산물 가격정보	16.5
5	공공정보	법률관련정보	16.1
6	스포츠·레저정보	취미생활정보	15.2
7	쇼핑정보	쇼핑뉴스(물가동향, 세일안내 등)	14.4
8	공공정보	각종 민원처리안내정보	13.0
9	쇼핑정보	쇼핑가이드(상품안내, 상가안내, 가격 안내등)	12.3
9	생활경제정보	경제동향, 정책, 뉴스	12.3
9	생활경제정보	홈뱅킹	12.3
12	보건·의료정보	건강상담시스템	11.0
13	교육정보	유아교육(지능개발방법등)	10.6
13	보건·의료정보	중요한 질병예방, 관리위한정보	10.5
15	여행관광정보	교통, 도로안내	10.3
16	쇼핑정보	물물교환정보	10.0
17	보건·의료정보	한의학, 민간요법	9.9
18	생활경제정보	부동산/주택정보	9.8
19	교육정보	자격증, 면허	9.5
19	생활경제정보	취업정보	9.5
21	쇼핑정보	상품특성에관한정보	9.1
22	교육정보	예절, 에티켓	9.0
22	보건·의료정보	식성과 영양	9.0
24	생활과학및핀의정보	패용 이용법	8.7
25	여행관광정보	명승지 등 관광지 안내	7.5
26	생활과학및핀의정보	요리안내	7.4
27	교육정보	교육기관, 시설안내	7.3
28	교육정보	입시, 진입학, 유학안내	7.3
29	공공정부	민원상담시스템	6.9
30	보건·의료정보	어린이와 모자보건	6.6
30	문화생활안내	문화행사안내	6.6
32	생활경제정보	세무정보	6.3
33	생활경제정보	증권, 채권정보	6.2
34	스포츠·레저정보	스포츠뉴스	6.1
34	교육정보	가정학습시스템	6.1
36	농수산정보	농/수산/축산기술정보	6.0
37	생활과학및핀의정보	환경및주거(실내장식등)	5.5
38	문화생활정보	전자우편	5.4
39	생활경제정보	보험정보	5.3
40	여행관광정보	관광예약(티켓및항공예약안내)	5.0
41	농수산정보	특수작물재배 및 양식어업기술정보	4.8
42	농수산정보	농수산업에 필요한 도구 및 물품정보	4.6
43	교육정보	생활지도상담	4.5
44	생활과학및핀의정보	생활품관리, 활용	4.4
44	생활과학및핀의정보	생필품관리, 활용	4.4
44	생활경제정보	금융정보	4.4

순위	부분별 정보	정보 내용	
47	농수산정보	농업/축산/어업경제정보	4.3
48	스포츠·레저정보	오락, 게임, 퀴즈	4.2
49	여행관광정보	민속행사, 축제, 향토음식안내	4.0
50	쇼핑정보	상품주문시스템(홈쇼핑)	3.9
50	공공정보	공무원 및 공공시험안내	3.9
50	문화생활정보	도시, 출판안내	3.9
53	교육정보	강좌, 강습(외국어및학습보충)	3.8
54	여행관광정보	해외각국소개(물품, 풍습등)	3.6
55	공공정보	미아, 가출인찾기	3.5
56	공공정보	공공시설및공공기간안내	3.3
57	스포츠·레저정보	스포츠, 취미생활시설안내	3.1
57	문화생활정보	유행(Fashion) 정보	3.1
59	공공정보	간급재해보정보	2.9
60	생활경제정보	기업정보	2.5
61	여행관광정보	여행사 및 단체관광안내	2.1
62	교육정보	역사, 문화재에 대한안내	2.0
63	교육정보	전자사전	1.9
64	문화생활정보	문화시설안내(박물관, 미술관등)	1.8
65	여행관광정보	드라이브코스	1.7
65	생활경제정보	해외경제동향	1.7
67	생활과학및핀의정보	의료제작 및 관리요령	1.6
68	스포츠·레저정보	스포츠, 레저장및강좌안내	1.5
69	여행관광정보	여행사해외단체관광안내	1.3
69	스포츠·레저정보	스포츠선수, 기록안내	1.3
71	생활경제정보	의류정보	0.4

전제설문의 세부사항별 요구정보를 표시한 것이〈표3〉인데 이중 특이할 만한 것은 부분별로 보았을때 쇼핑정보 중 물물교환정보, 보건정보 중 응급처치방법, 생활정보 중 경제동향, 정책, 뉴스, 농수산정보 중 농수산업에 필요한 것은 정보의 깊이와 신속성과 연계되어 그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 요구정보 중 정부의 정책행정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가 많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며 이는 정부의 대 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조기에 정보를 공개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국내 DB산업은 아직 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초기단계에 있다. 그러나 외국의 우수 DB제작업체나 판매업체의 판매실적으로 미루어 그 분야가 대단히 발전되어야 하고 매출 또한 방대할 것은 확연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관·산·학·연이 일치가 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시장 특히 DB산업에 대한 조기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국내 D

B산업에 대한 절대적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언급된 사항들이 한꺼번에 이루어 질수 있는 일들도 아니다. 그러기에 보다 구체적인 육성 발전계획을 수립함이 우선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극적인 공동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 아래와 같은 일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정보의 공개 및 유통을 보장하고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분야별 DB를 구축 서비스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분야별 전산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DB산업의 Infrastructure가 되는 디지털통신망의 확장과 개인이 소유하여야 하는 도구 즉 개인용 컴퓨터, 통신기기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과

기능, 성능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넷째, 사용자 편의와 DB제작의 기본이 되는 표준화사업이 병행 추진 되어야 하겠다.

DB산업이 정보산업의 일부분이며 정보산업이 균형있게 발전되지 못하는 한 DB산업 단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특히 DB의 수록될 자료들은 단순히 수집되어 제작된다는 차원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곳이 있어야 하고 그 생산은 결국 본인의 업무처리에 의해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의 전산화 촉진과 이를 통한 사회의 Network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DB나 보유하고 있는 DB판이라도 많은 사람이 그 소재를 알 수 있게 하고 그 질적인 수준을 구분하고 공개하므로써 우선은 DB마인드라는 것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오늘날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